

지역 소식통

고창군, 2024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 1억원 돌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난 11일 기준으로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1억원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목표액 6억원을 초과 달성한 고창군은 2024년에도 기부자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으며, 고향 농·축협과 공무원들의 지역 간 상호기부로 우수한 모금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고창군은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지인 소개하기, 맞춤형 답례품 개발 등 10만원대 기부자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8000여명의 고정 기부자를 확보하고, 재외향우들과 관내 기관·사회단체와 연계해 주도적 홍보를 통해 민간 참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부금이 필요한 곳에 기부자를 연결 시켜주는 지정기부제가 도입돼 고향사랑기부제의 효과성을 높이고, 더 많은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한우개량 촉진 탄소중립 실현 총력

부안군은 2024년 관내 한우 혈통개량 촉진 및 고품질 한우 생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한우 혈통개량 관련 총 8개 사업에 7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부안 명품한우 육성을 위한 소 우량 정액 지원 등 기초 개량 사업에 1억원을 투입하고 고급육 출현을 향상과 우량 번식기반 육성을 위한 암소 유전형질 개량 지원사업 등에 3억원, 우량암소 조기 선발을 위한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사업 등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사업은 축산업 최대 과제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유전체분석을 통해 빠른 개체 선발과 도태, 계획교배를 돕고 탄소배출 감소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

이학수 시장 “현장 행정 통해 기업하기 좋은 정읍 조성 최선”

정읍시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전북자치도가 주관한 '2023년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가에서 다양한

신규시책 추진과 각종 공모사업 선정, 기업의 애로 해소와 규제개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얻었다.

이에 따라 시는 기관 표창과 함께

6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기관장 관심도와 기업애로·규제 애로 해소 등 16개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추진으로 기업의 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했고, 각종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발굴해 지역 내 기업체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했다. 시는 올해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조성을 위해 친기업 행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업 민원 신속처리단을 구성해 기업 맞춤형 신속 민원 해소를 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편익과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과 더불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한 이차보전을 확대 시행한다.

이학수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지역 내 기업들의 협조와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올해도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정읍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선정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 신혼부부·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오는 4월15일까지 신청

고창군의 대표적 내집 마련 지원사업인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신혼부부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조례개정을 통해 대상자와 지원기간, 횟수 등을 늘려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기존 신혼부부에서 청년까지 확대했고, 신혼기간도 기존 5년에

서 7년까지 늘렸다.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횟수도 최대 5번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은 기존 전세 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시에도 대출이자를 지원해 고창에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돕는다. 군은 올해 2억원 사업비를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되어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청년은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3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이며,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 및 자격 검토 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및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잦은 강우 양파·마늘 습해 예방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양파·마늘 습해 예방을 위해 농가의 적절한 관리와 방담을 당부했다.

14일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 대비 강수량이 많고 일조시간이 부족해 양파와 마늘의 생육 부진과 습해로 인한 병해충 피해가 우려된다. 주요 병해 중 하나인 노균병은 잎이 연두색으로 변하고 전체적으로 위축되는 증상을 보이고 잎마름병은 잎 표면에 검정색 포자를 형성하는 병

반이 나타난다. 또한 집중 호우 시 양파의 잎끝부 갈변 고사 피해를 유발하고, 마늘은 고랑에 모여 있는 물이 빨리 배수되지 않을 경우 습해로 인해 뿌리 발육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서는 사전에 배수로를 정비하고, 습해 발생이 심한 포장에서는 비닐멀칭을 일부 걷어내어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비닐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흙을 덮어 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배 관리 측면에서는 2차 웃거름은 3월 중·하순까지 줘야 하며, 과도한 웃거름 사용이나 잘못된 시기의 시비는 영양 생장을 지속시켜 구비대가 지연되거나 양파 청립주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노균병 발생 환경이 조성되는 양파 이전에 약제를 살포하고, 병이 관찰되면 2차 감염원을 제거해야 한다. 일주일 간격 3~4회 정도 보호형 약제를 살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청 전경

(사진=부안군 제공)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부안군, 자치도 군단위 유일 3년 연속 선정 쾌거

부안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2023년 실적)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지자체 72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군을 포함한 6개 시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면 군은 도내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을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적

극행정 이행성과, 적극행정 체감도 등 5대 항목 18개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상위 30%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관악현 부안군수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선례에 없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군민체감도 높은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낸 공직사회의 값진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보건소,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 '호응'

정읍시 보건소가 시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경로당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만성질환과 건강 관리를 위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을 돕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 내 경로당 81개소 1,200명을 대상으로 개소당 3회 방문해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는 △기초건강측정(혈압·혈당·빈혈 수치) 및 건강상담 △건강관리 교육 △치매 인지선별검사(CIST) 및 인지강화 훈련 교육 △노인 우울 및 자살 예방교육 △올바른 치솔질 방법 및 노인 틀니 관리법 교육 △염도측정계를 활용한 영양교육 및 저염식 조리 시연 등이다.



한 어르신은 “직원들이 경로당에 직접 와서 상담부터 교육까지 해주니 너무 편하다”며 “경로당에 생기가 넘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